

성운 스님의

보리수 아래서

그 시는 언어의 사리

–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을 읽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애송하는 시 몇 편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사무치게 그립거나 고향이 그리우면 그리움 시를 읊으면서 마음을 위로하고 달랩니다. 우울하고 슬프거나 괴로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을 때는 사랑 시에 자신의 감정을 이입시켜 사랑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그린 시는 마음의 친구가 되고 감정치료사나 심리치료사가 되기도 합니다. 시를 읽고 쓰면서 위로와 공감을 나누는 〈시치료〉라는 책도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시 치료사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래 사람이 시적이어서 그런지 시를 가까이 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촉촉해집니다. 삶이 새로워지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대됩니다. 시는 세상을 비판 고발하기도 하고, 역사를 반추하기도 하니까요.

따뜻하고 명징한 詩 설법

"장경속에서 더 많은 시어

걸어나와 세상 밝히길"

*산승이 최근 불교언론인 홍사성 시인의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을 보았습니다. 불교라는 글자가 없는데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녹아있는 이 시집이 반가웠습니다. 그리고 고마웠습니다. 늦깎이로 등단해 첫 시집 〈내년에 사는 법〉이 주목을 받더니 이번에는 정형시를 모은 단시조집 〈고마운 아침〉이 출간과 함께 시선집중이라고 합니다.

'안심을 얻다' – 장맛비 억수로 쏟아지는 날이었다 / 우산을 썼는데도 온몸이 다 젖었다 / 차라리 비에 젖으니 되레 마음 편했다 /

거스르지 않고, 집착을 놓을 때 마음이 편해지는 순리와 비움의 시 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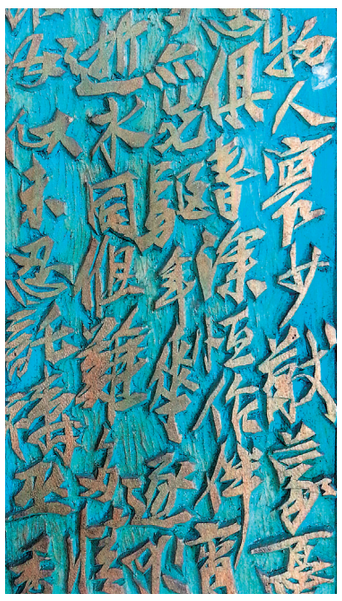
'결론' – 어찌해도 안 되면 어찌해야 합니까 / 눈감고 / 귀 막고 / 입 닫고 / 돌아 앉으세요 / 그리고 기다리세요 / 곧 결론이 날 겁니다 /

안이비설신의 6근을 쉬고 기다리면 업대로 결론이 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호천망극' – 지천보다 가깝던 사형님이 입적했다 / 회자정리라 / 어쩔 수 없는 일이긴 하나 / 거짓말 할 곳 없는 게 가장 허전하다 /

혈육 같던 사형으로 시인였던 오현선사의 입적을 누구보다 아파했던 시인은 '영정사진' '그 얼굴' '만해마을에서 하룻밤' '설악산' 등 여러 편의 추모시를 헌정했습니다. 향기로운 인간관계입니다.

'패랭이꽃'은 31,800년 만에 다시 만난 사랑의 인연을, '모두가 꽃'은 세계일화의 화엄을 노래했습니다. '태풍일과후'는 자연이 일러주는 겸



시는 영혼의 사리 그림 · 조향숙

손을 그렸습니다. 책의 제목인 '고마운 아침'은 당연한 일상이 세상에서 가장 고마운 일이라고 아내 사랑과 함께 전합니다.

응축된 함축미를 보이는 이 시집은 절집의 주련 같은 시조 법문집으로 따뜻하고 명징합니다. 산승은 이 시집을 오랜 수행의 불심과 시심이 일체화된 통찰지의 언어 사리라고 보았습니다. 이런 시는 그 어떤 설법보다도 대중교화의 힘이 있습니다.

*사색의 계절 가을입니다. 〈고마운 아침〉처럼 불교시가 아닌듯한 불교시도 좋고, 선시나 게송도 좋습니다. 문수와 보현의 화신이라는 한산과 습득의 시도 좋습니다. 시를 벗 삼읍시다. 그리고 팔만대장경 속에서 아름다운 시어가 걸어나와 세상을 밝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삼천사 회주 · 동국대 석좌교수〉

"비구니 헌신, 불교발전 영향 지대"

조계종 전국비구니회, 창립 50주년 기념법회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1968년 '우담바라회'로 출발해 1985년 '전국비구니회'로 명칭을 변경하며 비구니스님들의 역량 결집을 도맡아온 조계종 전국비구니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았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10월 28일 서울 전국비구니회관 법룡사에서 '전국비구니회 50주년 역사와 미래'라는 주제로 창립 기념법회를 열고, 반백년의 역사를 돌아보며 앞으로의 100년을 도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행사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교육원장 현응 스님을 비롯한 총무원 교역직스님들과 동국대 이사장 자광 스님, 김정숙 영부인, 박원순 서울시장, 주호영 국회 정각회장, 정순균 강남구청장 등 내빈을 비롯해 20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기념법회서는 전국비구니회의 50년 활동상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상영됐다. 다큐멘터리에는 목동 청소년회관을 시작으로 전국비구니회관을 건립 · 운영하면서 일궈낸 문화, 복지, 교육 발전에 담긴 비구니스님들의 활약상이 조명됐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환영사에서 "50년의 성상을 지내오며 때로는 한국불교의 영광과 위기의 순간을 함께 이겨내야 했으며, 비구니스님들의 수행과 포교를 격려하며 사부대중의 의지처가 되고자 노력해왔다"면서 "전국비구니회는 지난 50년 역사와 역대 비구니 원로스님께서 보여주신 가르침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원력을 세워 보살도의 길을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치사를 통해 "비구니스님들이 법상에서 후학을

원행 스님 등 스님들 비롯해

김정숙 여사 · 박원순 시장 등

사부대중 2000명 참석 축하

뮤지컬 등 문화공연 선뵈고

강남구에 장학금 · 백미 전달

육문 스님 "새 원력 세우자"

제접하고 대중을 교화하는 것은 이웃종교, 이웃교단,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승한 전통이다. 이 같은 현상에 머무르지 않고 더 큰 평등의 세상으로 나아가야한다"고 격려한 뒤 총무원장 후보시절 공약인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 등에 대해 종단 중의를 모아 적극적으로 실현해 나아갈 것을 약속했다.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전국비구니회 원로의장인 명성 스님은 영상 격려사를 통해 다가올 100년을 비구니회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명성 스님은 "1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심고, 100년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교육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후대를 위해 지금 이 자리서부터 힘을 내 인재불사를 해야 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초발심의 마음으로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숙 영부인은 축사에서 "전국비구니회 50주년을 축하드린다"는 짧은 인사를 남겼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구니스님들이 대한민국의 등불이 돼 달라.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존중하는 시대를 열어달라"며 "아낌없이 베푸는 보시의 가르침이 사회 전반에 흐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 창립 5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한 대중이 활동상을 담은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주호영 국회정각회장은 "부처님 하면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생각나는데, 특히 비구니스님 사찰에 가면 푸근하고 편안하다"며 "앞으로도 크게 발전해 한국불교 중흥에 비구니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평가가 나오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국비구니회는 이날 50주년을 기념해 청소년 장학금 1000만원과 지역주민을 위한 백미 200포(2,000kg)를 강남구청에 기탁했다. 또한 오후 문화공연서는 뮤지컬 '손오공과 급식 원정대(선재 스님과 함께하는 온 가족 사찰음식 대잔치)'를 비롯해 찬불가 · 샤카디타 앙상블 · 어린이 중창 · 수화공연 · 핸드벨공연 등이 강당에서 진행됐다. 아울러 전국비구니회 각 지회들은 플리마켓을 운영해 사찰음식과 각종 소품 등을 판매했다.

"연기 가르침, 청소년 자살문제 대안"

조계종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1주년 대화마당

'청소년 소외' 주제로 다뤄

"해결보다 접근부터 선행을"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청소년 사회문제에 대한 대화마당을 열었다. 첫 대화마당에서는 자살과 관련된 청소년 소외문제를 다뤄 연기의 가르침을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심산)는 10월 31일 서울 전법회관 3층 회의실서 미래세대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 연속 대화마당 '불교, 미래세대를 말한다'를 열고, '미래세대의 소외를 말한다'라는 주제로 토론했다.〈사진〉

이날 진창호 생명생존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과 김희성 서울청년정책네트



워크 실행위원은 마중물 발언을 통해 현재 우리나라 청소년 자살 현황과 청소년 지원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같은 발표에 토론자로 나선 황선미 불교상담개발원 사무국장은 "불교는 이미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폭력과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한 발생원인과 명쾌한 해답을 가지고 있다. 바로 연기의 가르침"이라고 전제하면서도 "문제는 연기적 공동체라는 사실에 대한 철저한 자각과 매 삶의 순간에서의 실천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황 사무국장은 이어 청소년 상담사례를 제시한 뒤 "불교계가 미래세대를 위한 전법과 교육에 무관심했다. 앞으로 스스로 주체 · 객체가 돼 연기적 공동체에 대한 자각의 확산, 상담 및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를 실천하는 사업을 펼칠 것을 제안한다"며 "종단과 사찰, 단체 등 연대를 바탕으로 각종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수원 영통종합사회복지관장 수안 스님은 "청소년 소외는 어느 종교, 어느 부처만의 문제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문제에 대한 해결보다는 제약을 벗어나 자유로운 접근이 이뤄지도록 유연하게 대처한 방법론이 제시됐으면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윤호섭 기자

대한불교청년회 회장 선출 두고 내홍 조짐

단독 입후보 김성권, 재임 무산

김성권 대한불교청년회 중앙회장이 단독후보로 나선 제30대 중앙회장 선거가 부결됐다.

대불청 중앙대의원회(의장 최재혁)는 10월 28일 제69차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0대 중앙회장 선출 선거를 진행, 찬성 55표, 반대 81표로 단독으로 입후보한 김성권 현 회장의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불청 중앙대의원회는 선거일 및 입후보 등록기간을 재공고하고 11월 25일 오후 1시 재선거를 치루기로 했다.

이에 앞서 대불청은 정회원 자격의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대불청 정회원 자격은 만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회원 고령화로 인한 자격 상한 폐지 목소리가 꾸준히 있어왔다.

노덕현 기자

세계에서 침 제일 의과대학, 중국 1위 대학 –

세계 100위 대학 남경대 재경

2019년도 남경 의대(중의학) 학생 모집



혜인스님
한국총장

조기유학생 모 집

어학단기반

● 초 6년 ~ 고 3 재학
● 남경사범대학 부속실험학교
www.njsdfc.co.kr

한국 유학생 중국의사 개업 취업
의료행위 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 중국 의대졸업생 중국정부 중국 의사자격 취득한
외국인 개업 의사활동 허용한다고 중국정부는 발표했다.

❶ 특차모집(남경중의학대학)

학 과	학 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한의학과	5년	100명	• 최종학력증명 1부 • 최종성적증명 1부 • 입학신청서 1부 • 여권용사진 10부
석사과정	3년	50명	
박사과정	3년	10명	
재경대학	4년	80명	• 법학,경제,경영,무역,식품,금융 등

❷ 지원자격
▶ 고등학교 졸업 및 동등이상 학력자
▶ 주지스님 추천자

❸ 학교소개
▶ 세계침구 1위 명문 국립 한의과대학
▶ WTO 국제 전통의학 협력센터
▶ 부속병원3,제약공장,교육병원12,제약연구소 등 완비
▶ 중국어 어학원 및 유학생전용 기숙사
▶ 군입대 연기 가능
▶ 현재 생활관리 담당교사 상주하여 학사 관리
▶ 학자금 대출 가능
▶ 서울시내 대학 편입 가능
▶ 중국내 개업 의사 가능

❹ 전형방법 및 모집기간
▶ 전형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모집기간 : 2018년 11월 25일까지 수시전형

❺ 지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한국 사무처 –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불교조계종 교학과에서 직접 교부 (지방은 우편으로 배부 가능) www.njutcm.co.kr
▶ 접수 : 불교조계종 한국분교(빠른 접수 가능)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돈암동 83-2)
▶ 제출서류 특별전형 : 최종학력증명 및 성적증명서 각 1통
▶ 기 타 어학연수 및 조기유학에 관한 문의는 불교조계종 국제교류처(☎02-511-1080)으로 문의 바람.

❻ 학비(등록비 및 보험료 포함)
▶ 학사 과정 : 매년 25,800위안
▶ 석사 과정 : 매년 33,800위안
▶ 박사 과정 : 매년 41,800위안

■ 남경중의약대학(南京中醫藥大學)
南京市仙林大道138號(210023)
138 Xianlin Rd., Nanjing 210023, P.R.China
E-mail : overseas@njucm.edu.cn
Website : www.njucm.edu.cn

■ 한국상담처 : 불교조계종 총무원교육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26가길 50-1 (돈암동 83-2)
▶ 교학처 : (02)511-2026, 2027
Fax (02)511-2028
▶ 총장실 : (02)511-1080
▶ http://www.njutcm.co.kr